

날짜: 5786 년, 8 월 14 일 (2025 년 11 월 5 일)

토라 문: 나타나시니라

주제: 칭찬할 만한 의로운 사람

창세기 18 장 17-19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미드라시는 잠언 10 장 7 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의로운 사람의 이름은 복이 되지만, 악한 사람의 이름은 썩어 질 것이다.” 랍비 이츠하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언급하고 그를 축복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의 긍정적인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의로운 자의 이름은 복이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구절이 단순히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언급’과 ‘이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랍비 이츠하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의로운 사람을 언급할 때는 복을 빌어야 하고, 반대로 악한 사람을 언급할 때는 저주가 따라야 한다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악한 사람을 말하면서 저주하지 않는 사람도 긍정적인 계명을 어기는 거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악인의 이름은 썩어질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 브라코트 10a 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 왕은 시편에서 자신이 소중히 여긴 장을 쓸 때마다 “복 있는 사람은...”(시편 1:1)으로 시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도다” (시 2:12)로 마무리 맺었습니다. 한 어떤 ‘암 하아레츠’ (토라를 잘 모르는 사람들)가 랍비 메이르를 지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위해 죽음으로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브루리아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그들의 죽음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랍비 메이르는 시편 104 편 35 절을 “죄인들이 땅에서 끊어지기를...” 인용하여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브루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이라는 단어는 실제 사람이라기 보다는 죄를 짓게 하는 것, 즉 악한 본성을 뜻합니다. 따라서 다윗 왕은 죄인의 죽음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죄로 이끄는 악한 본성이 사라지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을 칭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악한 사람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방이나 뒷말이 아닌 경우) 경고로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을 따라 하지 않게 됩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미드라시는 악한 사람은 저주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하르샤는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는, “의로운 자의 이름은 복이 된다”로 시작하면서도, “악인의 이름은 저주가 된다”라고 끝나지 않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는 우리가 악인을 저주하기보다 그들이 여호와 엘로힘께 돌아오기를 바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이름은 썩어질 것이다”라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회개하여 “악한 명성”이 사라지기를 바란다는 뜻인 것입니다. 마하르샤는 자신이 회개할 수 있도록 여호와 엘로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 회개하길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구분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샬롬